

다산포럼

종교란 무엇인가?



송재소
성공관대 명예교수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끔찍한 테러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때마다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의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있다. 근래에만 해도 2015년 프랑스 파리의 폭탄 테러로 130명이 사망했고 2016년 브뤼셀 폭탄 테러로 34명이 사망한 데 이어 프랑스 니스 해변에서 트럭 테러가 발생하여 최소 80명이 사망했다.

사망자들은 모두 민간인이고 테러를 자행한 주체는 종교 집단인데 대부분이 이슬람교도들이다. 니스의 트럭 테러범은 25톤 트럭으로 광란의 질주를 계속하며 ‘알라라 위대하다’라 외쳤다고 한다. ‘알라’는 무슬림들이 믿는 유일신이다. 그들은 알라의 말씀을 적었다는 코란에 따라 생활하므로 다소 독특한 관습을 가

지고 있다.

그들의 가장 독특한 생활 관습이 할랄과 하집이다. ‘할랄’은 무슬림들이 먹어도 되는 음식을 말한다. 그들은 코란의 가르침에 따라 죽은 동물, 피 흘리는 동물, 돼지 등 불결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특히 돼지고기는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오염물로 분류된다. 먹을 수 있는 가축도 할랄 방식으로 도축되어야 하고 도축장 반경 5km 이내에는 돼지 농장이 없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나 술 등을 실었던 트럭에 할랄 식품을 운송해서도 안 된다는 엄격한 규정도 있다.

할랄과 함께 이들이 지켜야 할 엄격한 규정이 ‘하집’이다. 하집은 여성들의 신체를 가리는 독특한 의상으로 남편이나 가족이 아닌 남성에게 몸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는 관습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집의 종류는 다양한데 눈을 포함해서 전신을 가리는 ‘차드리’와 눈을 제외한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가 가장 보수적인 의상이다.

하지만 이걸 심각한 여성 차별이다. 프랑스에서는 부르카를 ‘웃감으로 만든 여성의 감옥’이라 부른다.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성의 참정권이 없는 것은 물론 여성은 자동차 운전도 할 수 없다.

무슬림들이 그들이 믿는 신의 가르침에 따라서 할랄만 먹고 하집을 착용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이다. 더 근본적으로 신의 존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도 개인의 자유이고, 어떤 신을 믿느냐도 개인의 자유이다. 그리고 유신론자가 무신론자를 비난할 수도 있고 무신론자가 유신론자를 비난할 수 있으며, 특정 종교의 신도가 타 종교의 신도를 비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기들이 믿는 신을 믿으라고 강요하거나 믿지 않는다고 억압해서는 안 된다. 자기들이 믿는 신을 믿지 않는다고 폭행을 가해서는 더더구나 안 된다. 인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쇠고기를 먹은 무슬림이 소를 신성시하는 힌두교도들에게 집단 구타당하여 사망했다고 한다. 이런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알라라 위대하다’를 외치며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 살육을 저지른 한 무슬림의 만행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알라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행위인가?

지금까지 인류는 신의 이름으로 수많은 살육을 저질러 왔다. 사랑과 관용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종교의 이름으로 또

알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는가. 그렇다면 과연 신은 무엇인가? 옥스퍼드 대학의 리처드 도킨스 교수는 그의 저서 ‘만들어진 신’(The God delusion)에서 “신은 망상이다... 그것은 유해한 망상이다”라 말했는데 알리가 있는 말이라 생각한다.

사람이 망상에 사로잡히면 맹목적인 성향을 띠게 되고 그것이 심해지면 광기(狂氣)로 발전한다. 그리고 개인적 망상에 그친다면 그렇게 유해하진 않지만 그것이 종교적 집단 망상으로 발전하면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무슬림들의 테러나 무슬림에 대한 힌두교도의 집단 구타 등이 그것이다. 이는 이슬람이나 힌두교뿐만 아니라 신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한, 어느 종교의 경우나 마찬가지이다.

종교란 기본적으로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자기 위안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을 믿고 종교적 신앙을 가지는 것을 누가 뭐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지나친 나머지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타인에게 해를 끼친다면 그것은 종교의 탈을 쓴 범죄 행위일 뿐이다.

정촌 특·특

‘겸손은 힘들어’



김연수
동신대 한의학과 본과 4년

매번 시험에서 5등급을 받는 학생이 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최근 시험에서 2등급을 받았다. 이후 시험에서 이 학생은 3등급이라는 성적을 받은 뒤 “아! 이번 시험은 망쳤어!”라고 한탄한다. 그동안 5등급을 받았던 학생이 단 한 번 2등급을 받았었다는 것 때문에 3등급을 받고 능력에 비해 부족한 성적, 망친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나는 술을 잘 마시는 편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날보다 컨디션이 좋은 날은 소주 두 병을 마셨음에도 정신이 말짱하기도 한다. 그날 이후 난 내 주량을 ‘소주 두 병 이상’이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나는 다음 술자리에서 소주 두 병은커녕 단 한 병에 정신을 잃고 숙취에 시달렸다.

이처럼 사람의 능력은 매번 똑같지 않고 그날의 기분, 건강상태, 주변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달라진다. 즉, 일정한

값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최소값과 최대값 내 그때그때 다르다. 쉽게 말하면 자기 능력을 넘어서실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단 한 순간의 요행, 숙된 말로 ‘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최댓값을 ‘자신의 능력’으로 맹신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게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과음을 하다가 정신을 잃게 될 수도 있고, 괜장은 성적을 받아놓고도 실망하듯 스스로 상처를 입힐 수 있다.

나는 여행을 좋아한다. 모르는 곳이 주는 낯선 느낌, 목적지를 찾아가는 성취감, 일상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처럼 여행을 할 때면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좋다. 여행은 내 삶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다. 바로 지도다. 우리는 지도가 없기에 모르는 곳을 여행하고 목적지를 찾아갈 수 없다.

그런데 목적지 위치만 놓고 우리가 원하는, 가려하는 목적지를 정확히 찾아갈 수 있을까? 쉽지 않다. 지도에서 목적지의 위치와 함께 꼭 필요한 정보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현 위치’다. 우리는 지도를 볼 때 목적지의 위치와 지금 내가 서 있는 현재 위치를 반드시 파악해야한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목표에 대해 완벽

하진 않더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목표를 향해가는 과정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된다. 왜 일까. 내가 어디로 가야할지 물러서기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여러 가지가 떠오르겠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의 미덕이라고 생각한다.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겸손은 조금 다르다. 남에게 보여주는 태도로서의 겸손이 아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으로서의 겸손을 이야기하고 싶다. 자신을 겸손하게 평가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 그래서 자신이 진짜 가지고 있는 능력과 우연히 맞이한 행운을 구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말하고 싶은 겸손이고, 그것이 아마도 우리가 인생의 목적지를 가장 정확하게 안전하게 찾아가기 위해 필요한 내비게이션이다.

매번 5등급의 성적을 받아온 학생이 단 한 번 2등급을 받는다고 그 학생의 실력은 2등급이 아니다. 주량이 소주 한 병이지만 단 한차례의 술자리에서 소주 두 병을 마셨다고 주량을 소주 두 병으로 평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다만, 5등급을 맞는 학생이 2등급의 실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주량은 약하지만 술자리에서 오래 버틸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단 한 순간 요행으로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자신의 목표를 향해 가는 게 그 방법이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다. 주변에서 흔히 ‘곤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네 주제를 알아라’라고 말한다. 조금은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말이고 약간은 ‘재수 없게’ 느껴지는 말이다. 하지만, 자신을 정확히 알고 장·단점을 파악해 자신의 현재 능력과 위치를 확실하게 깨닫는 것은 인생의 목표를 향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1991년 6월 30일 가수 조영남씨가 발표한 곡 중 ‘겸손은 힘들어’라는 노래가 있다. 이 노래는 2012년, 리쌍에 의해 다시 리메이크 된다. 겸손은 힘들어, 맞는 말이다. 사람들 각자 자기 잘난 맛에 산다.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누구든 행복함을 느낀다. 그런 달콤한 행복을 버리고 겸손의 태도를 가지는 게 이 노래의 제목처럼 무척 힘든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잠깐의 달콤함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겸손하게 채찍질하는 사람에게 훨씬 더 맛있고 달콤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기고

세월호, 안전문화 구축의 시발점



나석주
광주도시철도공사 안전정책본부장

맑은 봄 하늘이 오히려 처량한 요즘이다. 3년 만에 상처투성이로 돌아와 목포 신항에 거치된 배를 지켜보는 마음도 그 세월의 무게만치 찢겨져 참담하기 그지 없다. 안전 검사와 제반절차가 마무리되고 드디어 선체 수색이 시작됐다. 주인 잃고 잠들어있던 유류품이 하나 둘 발견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축하해야 하는지, 슬퍼해야 하는지 기막힌 혼란이다. 유가족이 되는 것이 소원이라는 미수습자 가족들의 처절한 기다림을 떠올리니 시야가 흐려진다. 어머니의 눈물이 바다가 되어 가라앉은 배를 휘

잡아 지켜왔을 3년이었다. 눈물로나마 내 자식 안아줄 수 있을까 가슴으로 더 크게 통곡했을까. 여전히 노란리본은 불꽃처럼 천진하게 흩날리고 있다. 기다렸다고, 잊지 않았다고...

인양과 수색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세월호 참사가 안겨 준 충격을 떠올리게 된다. 3년 전의 일이지만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대형 여객선이 침몰 중이라는 뜻밖의 뉴스에 놀랐지만, 해경이 헬리콥터와 구조선을 동원해 구조하고 있으니 큰 일은 없을 거라 믿었다. 그러나 참담한 결말이었다. 300여명의 소중한 생명이 배와 함께 가라앉은 현장을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지켜봐야 했다. 국가기관이 나서서 온종일 구조를 해도 눈앞의 승객을 절반도 못 구한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했다.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그러기에 국가 가리는 안전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은 국가 안전관리시스템의 무능함을 극명하게 보여주었고 국가를 믿어왔던 국민을 좌절에 빠뜨렸다.

정부는 세월호 침몰원인을 알므로 더

정확히 조사하겠지만 지금까지 결과로는 일단 안전불감치 원인이었다. 다시 말해 사고의 원인과 대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원칙 없이 엉망이었다는 결론이다.

지하철 운영기관의 안전총괄 책임자인 필자에게도 세월호는 중대한 문제의식을 던졌다. 안전은 마치 유리처럼 평소에는 못 느끼지만 깨지고 나서야 큰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지금껏 최선의 노력으로 차근차근 성과를 올려왔다. 지난해 무사고·무지연·무재해의 ‘3無 안전지하철’을 이뤄낸 것이 대표적 예다. 그러나 철저한 예방에도 돌발변수는 있기에 방심할 수 없다. 세월호 사건은 ‘그 무엇보다도 안전이 우선’이라는 문구의 진정한 의미를 모든 임직원에게 실감하는 계기가 됐다.

세월호 참사는 그 어느 재해보다도 안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크게 높였다. 안전은 번거롭고 귀찮다는 안일한 대신, 더욱 철저하고 확실한 점검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문화가 확산됐다. 너무 값비싼 수업료

를 치르고서야 얻어낸 변화다. 세월호의 인양을 맞아 언론과 책자 등에서 술한 자성의 소리가 터져나왔다. 모두가 당연한 것을 소홀히 했던 대가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한목소리로 외쳤다. 두 번 다시 이런 가슴 아픈 일을 겪지 않겠다는 격렬한 몸부림이다. 더 이상 눈 앞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외침이다.

이제는 세월호 참사가 그간 우리 사회의 썩은 곳을 도려내고 새 살을 돋게 하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 침몰했던 안전의 식과 국가에 대한 신뢰도 함께 바로서기를 희망한다. 그것이 희생자들에게 대한 작은 예의이자,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방법일 것이다.

앞으로도 4월이 되면 눈부신 햇살이 서려워 눈물짓게 되리라. 그러나 눈물은 희망이 되어 빛날 것이라 믿는다.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과제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아직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 분들이 어서 가족에게 돌아와 따뜻한 곳에서 편히 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社說

또다시 말씨름으로 끝난 대선 후보 TV토론

그제 밤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첫 대선 후보 TV 토론회를 지켜본 한 전문가는 “누가 말씨름을 잘 하나를 평가하는 말씨름 기술 쇼를 보는 것 같았다”(서현진 성신여대 교수)고 비판했다. 대체로 ‘공약이나 정책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한 토론회’라는 혹평이 쏟아졌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번 토론회에서 상대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를 거부해 유권자 궁금증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배준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했지만 메시지 전달력이 약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신에 대한 공격에 대해 ‘아닙니다’ ‘실망입니다’ 등 추상적인 표현을 통해 대응한 점이 아쉬웠다”(김관규 동국대 교수)는 의견도 있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에 대해선 메시지 전달력은 뛰어났으나 상대방의 공격에 쉽게 당황한다는 평가가 대다

수였다. 홍 후보는 돼지 발정제 사건과 관련 거의 모든 후보로부터 대선 후보 사퇴 요구를 받기도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메시지 전달력에서 호평을 받았고 지난번 토론과는 달리 문 후보에 대한 공격을 자체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전반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식을 군대에 보낸 엄마가 500원짜리 동전을 모은다는 이야기를 끌어들이면서 현재 국방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설명하는 대목은 그나마 정책토론의 가능성을 보여 준 거의 유일한 대목이었다.

하지만 이번 2차 토론회는 전반적으로 2시간 내내 네거티브 공방으로 일류되면서 후보 간 진흙탕 공방은 더욱 심화됐다. 외교 안보와 정치개혁이라는 주제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낮 뜨거운 말씨름만 계속됐다.

TV토론은 후보들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다. 남은 세 차례의 TV토론(중앙선관위 2회, 중앙일보·JTBC 1회)만큼은 크게 달라지기를 기대한다.

여수 세계박람회장 정부 지원 계속되어야

내년부터 여수 세계박람회장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최근 입장객이 증가하면서 활기를 띠고 있는 여수박람회장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여수세계박람회장에 따르면 올 들어 3월 말까지 여수박람회장을 찾은 입장객은 74만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5만3405명보다 13.2% 증가했다. 3월 말까지 임대 수입도 3억7000여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5%나 늘었다. 특히 지난달 말 개장한 ‘빅오쇼’ 입장객은 5548명으로 전년보다 71.7% 증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여수 세계박람회장의 현재 능력과 위치를 확실하게 깨닫는 것은 인생의 목표를 향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1991년 6월 30일 가수 조영남씨가 발표한 곡 중 ‘겸손은 힘들어’라는 노래가 있다. 이 노래는 2012년, 리쌍에 의해 다시 리메이크 된다. 겸손은 힘들어, 맞는 말이다. 사람들 각자 자기 잘난 맛에 산다.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누구든 행복함을 느낀다. 그런 달콤한 행복을 버리고 겸손의 태도를 가지는 게 이 노래의 제목처럼 무척 힘든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잠깐의 달콤함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겸손하게 채찍질하는 사람에게 훨씬 더 맛있고 달콤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2014년 69억 원을 시작으로 2015년 75억 원, 2016년 52억 원, 2017년 2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왔다.

문제는 정부의 일몰제 적용으로 여수박람회장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여수박람회재단이 박람회장 운영에 사용한 예산은 모두 110억 원에 달하지만 자체 영업이익은 필요 예산의 절반 수준인 57억 원(2016년 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여수박람회장은 2019년까지 세금 100%를 감면받게 돼 있지만 2016년부터 적용된 ‘최소납부 세제’에 따라 최소 1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여수박람회장은 폐막 후 3년 동안 사후 활용 방안을 찾기 못하다 겨우 제자리를 찾은 상태다. 때문에 정부의 예산 중단은 이제 막 분개도에 오른 박람회장의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無 等 鼓

은행 강도는 소설이나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골 소재다. 이범선의 단편소설 ‘오발탄’에서는 실직 중인 동생과 계리사 사무실 서기인 형의 의견이 갈린다. 동생은 “살자니까 돈이 필요하구요. 필요한 돈이니가 구해야죠. 왜 우리라고 좀더 넓은 데투러, 법률선(法律線)까지 못 나가란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남들은 다 벗어던지구 법률선까지도 넘나들면서 사는데, 왜 우리만이 웅색한 양심의 울타리 안에서 숨어 막혀야 해야

은행 강도

가 붙잡혔다. 장난감이나 사제 총이 아닌 실제 45구경 권총을 사용한 범행이었다.

하지만 용의자는 CCTV를 활용한 경찰의 발 빠른 수사를 통해 55시간 만에 검거됐다. 소설이나 영화와 반대로 현실은 완벽하지 못했다.

범인은 예상과 달리 과수 농사를 짓는 평범한 40대 농부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빛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평범하게 살던 용의자가 ‘양심의 울타리’를 넘어 ‘법률선’까지 나선 요인은 결국 생활고였다. 극한의 선택을 하게 만든 경제난 등 현실 속 여건이 안타깝지만 하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지 사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